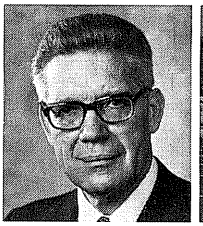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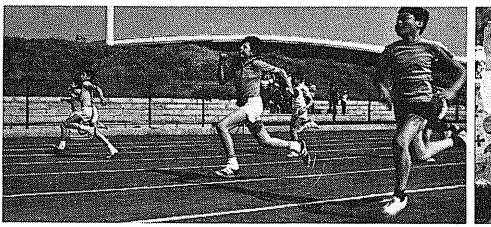
성도의벗 5
1979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고문
엠 러셀 밸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성도의 벗은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벗 5
1979

차 례

신권의 중요성……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1
아론 신권……오스카 더블류 맥콩키……4
젊은이의 용기……웨인 비 린……8
질의 응답……12
가정 복음 교육을
시작했던 날……돈 비 센터……14
가정의 재정 관리……올슨 스콧 카드……17
태엽 인간……세리 데이비스……21
동물의 식욕……찰린 에이 슐러……22
로니에……딜리어 케이 쇼어……24
심심풀이……28
해의 왕국의 결혼……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29
나부로의 집합……글랜 엠 레오날드……35
교회사와 세계사 연대표……43
예수님의 행적……남 영진……44
지역 소식……45

통 권 : 제166호, 제15권 제5호 1979년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재단 법인
발행일 : 1979년 5월 1일(월간지) 말일성도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틸 예수 그리스도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교회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판권 소유

신권의 중요성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권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우리의 잠재력은 한이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권고

내가 집사로 성임되기 바로 전에 처음으로 나는 신권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 나의 부친은 감독이었읍니다. 부친은 나에게 신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었읍니다. "얘야, 나는 네가 주님이 신권 소유자로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부친은 내가 12세가 되면서부터 나를 '성인'으로 대하면서 나를 존경했읍니다. 부친은 주께서 젊은 신권 소유자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었읍니다. 지혜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 점점 성장하면서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부친은 말했읍니다. "너는 세상에 속하여서는 안된다. 신권을 존중하고, 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모범이 되고, 어디서든지 의를 위해 서야 한다. 신권 소유자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할 때, 지금은 너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공연하게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너를 존경하고 신임하게 될 거다."

개인적인 책임

맥케이 대관장님은 건강 때문에 일을 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에게 여러번 이렇게 말했읍니다. "회원들에게 가면 언제나 그들이 누구인가를 상기시켜 주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말하시오. 회원 각자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시오." 개인적인 책임은 여러분이 어디에 처하거나 담대히 서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복음대로 생활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저녁 때 여자 친구와 나갔을 때나, 학교에서 남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낚시 여행을 떠날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이 누구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권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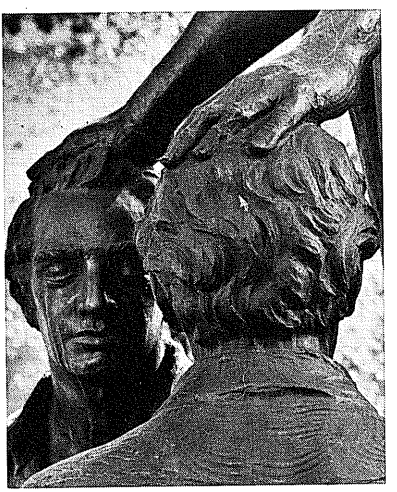
나는 이 신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신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지상에 이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도록

하셨읍니다. 주님은 신권을 무척 중하게 생각하시어 침례 요한을 보내어 아론 신권을 회복하게 하셨읍니다. 요한은 두 젊은이에게 자기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자기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보내졌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교성 13절)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론의 신권은 천사의 성역과 회개와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를 갖고 있읍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젊은이가 그러한 의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멜기세덱 신권을 그들에게 부여했읍니다. 신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신권의 성약에 대하여 교리와 성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읍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교성 48 : 33) 이 얼마나 훌륭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실하고 부르심을 충실히 수행하여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이 지금 뒷줄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성약을 지킴으로써 몸이 새로워진 좋은 예입니다. 대관장님께서 인후암으로 성대의 대부분의 기관을 제거해야 했고, 다시는 말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그의 상태에 대하여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캐나다의 스테이크 부장으로 있을 때 연차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님과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킴볼 대관장



1979년 5월 15일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에 의해 성임 받은 아론 신권 회복 제 150주년 기념일이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 다시 레위의 자손들이 의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교리와 성약 13편)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속삭임으로) "안녕하십니까? 내가 말할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태너 스테이크 부장님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읍니다." 그분은 말을 전혀 하실 수 없었읍니다. 다만 입김으로 하는 말 소리를 겨우 들을 수 있을 정도였읍니다. 우리는 그분이 결코 다시 말씀하실 수 있게 될는지 알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권의 축복을 받아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또 다시 그분의 성대에 종양이 더 커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권 소유자들을 불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름 축복을 해 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분이 부른 것은 신권이었읍니다. 그분이 완쾌되신 것은 리 대관장님과 태너 장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 때문이었읍니다. 그분은 축복을 받으셨고, 수술을 할 필요가 없어졌읍니다.

그런 다음에는 심장병이 생겼읍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도 킴볼 대관장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했읍니다. 리셀 넬슨 박사가 그분의 주치의였읍니다. 그분은 킴볼 대관장님의 살 수 있는 가망성은 반반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여러 달 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으나 수술을 받으면 희망은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우리는 한동안 리 대관장님의 사무실에서 토론하였읍니다. 마침내 킴볼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읍니다. "수술받겠읍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킴볼 사도님, 잘 생각하셨읍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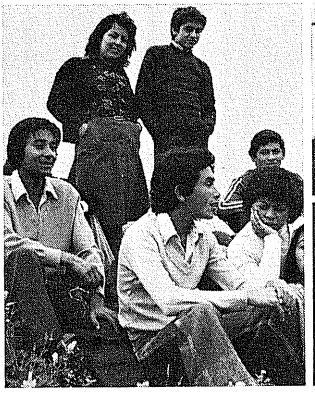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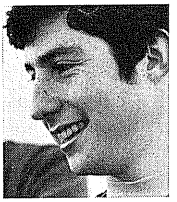
그러자 그분은 리 대관장님과 나에게 병자 축복을 부탁하셨읍니다. 우리는 그에게 병자 축복을 하였고 넬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요 하나님의 사도를 수술하는 것은 참으로 막중한 책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어느 것보다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킴볼 사도님은 이중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당시 내가 알기로 역사상 이중 심장 수술을 받아 본 사람은 킴볼 대관장님이 처음이었읍니다. 넬슨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저도 신권의 축복을 받아서 사도님의 생명을 구하도록 영의 지시를 받아 수술을 집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형제 여러분, 신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읍니까? 신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신권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12세의 소년이든 70세의 노인이든 어디에서 살고 있든, 신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인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바를 행할 때, 여러분은 보다 행복해지고 더욱 성공할 것이며, 보다 사랑받고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준비시켜 줄 일을 행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

아론 신권

오스카 더블류 맥콩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가 갖지 않으신 능력은 없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전능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 : 18)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사업을 행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그의 권세와 권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경고하였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 5 : 4)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받을 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그의 권세를 위임하실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이 권세를 불러들일 수도, 부여할 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이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절정의 시대에 그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신 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 : 16) 주님은 부르시는 분이고 인간은 응답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는 자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 덕분으로 신권을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신권의 힘을 이해하게 되었다. "신권은 영원한 원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신권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였고, 시작한 날도 끝 날도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7—58, 323페이지) 아담과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형성되기 전, 최초 창조 때"에 그들에게 부여된 신권을 갖고 있었다. (같은 책, 157페이지) 앨마는 "신권의 대신권에 성임"(앨 13 : 6) 된 자들은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능력으로…이루어졌느니라"(엘 13 : 3)라고 말하였다.

신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요 권능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다. 신권은 지상의 인간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행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세요 권능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신권의 권세와 권능에 속해 있다.

신권은 인간이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니, 헤아릴 수 없이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이 만국 백성 가운데서 크게 되게 하리라. 너는 네 자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은 만국 백성에서 성역을 베푸는 직분과 신권을 지니리라. 나는 네 이름을 통하여 저들을 축복하리니…너(이는 "곧 네 신권으로" 하는 일이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아브라함서 2 : 9-11)

세상이 어떻게 신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가? 복음의 축복을 통해서이다. 신권이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권이 구원의 축복을 집행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와드의 아론 신권 회장으로서 감독은 관할 구역 내에서의 침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책임 연령에 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요 3 : 3-7) 현대의 경전이 말하고 있듯이 신권은 복음을 전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 (교성 84 : 17-19)

사도 바울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권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면서 신권에 부름받은 자를 일컬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히 3 : 1)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거룩한 반차에 부름받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고 신권에 부름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성임된 자라고 말하였다. (히 5 : 1)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이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었다는 점이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 : 1)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 5 : 10)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서 예수는 완전한 모범이 되셨다. 그가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요 3 : 5 ; 니이 31 : 12-21) 그가 구원의 충만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는 상속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거룩한 신권을 받아야 한다. (교성 107 : 5, 8, 18-19 참조)

하나님께서도 유일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신권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성신권"(교성 107 : 3)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다. "전능하신 분의 이름을 존경하며 받드는 나머지 그 이름을 자주 반복하여 부름을 피하려고 옛 시대의 교회 회원들은 멜기세덱을 좇는 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이라 불렀느니라." (교성 107 : 4)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한에 멜기세덱 신권이라는 반차가 거듭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모든 신권은 멜기세덱이나 그것에는 각기 다른 부분 또는 등급이 있읍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 데져렛 출판사, 1976년〕, 180페이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신권의 반차가 있다.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이 그것이다. 아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멜기세덱 신권은 아론 신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권에 속해 있는 반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그러므로 계시는 다음과 같이 밝혀 주고 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곧 멜기세덱 신권과 레위 신권을 포함하고 있는 아론 신권이니라."(교성 107 : 1)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멜기세덱 신권은 아론 또는 레위 신권을 포함한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66페이지)고 설명하였다.

아론 신권

아론 신권은 위임과 권세의 신권이다. 이 신권이 "소신권이라 칭하는 이유는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연고"(교성 107 : 13-14)이다. "소신권"이라는 어휘는 결코 경시하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충만한 권능에 대하여 작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일부가 지상의 인간들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아론 신권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군대나 정치 체제보다 더 권세가 크다.

아론 신권에는 구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외형적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있다. (교성 107 : 13-14) 이 거룩한 반차에 위임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교성 20 : 73)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합법적인 집행자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권의 이 반차에 들어 있는 자들에게 그를 위하여 대행할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하셨다.

아론 신권은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교성 13편)있는 신권이다. 이 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므로 예비적인 신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라이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자였으므로 아론의 신권은 때때로 일라이어스의 신권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회개는 하나님을 알기위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열쇠이다. 그러므로 아론 신권은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신권이다.

아론 신권은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교성 13편)를 지니고 있는 신권이다. 아론 신권에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의식의 침례의 권능이 있다. (요 3 : 5)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아론 신권은 구원을 집행하도록 돕는다. "제사의 의무는… 침례를 베푸"(교성 20 : 46)는 것이다.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교성 73편)를 가지고 있는 신권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방문에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준비의 복음을 의안에서 권고할 뿐 아니라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이 아론

신권의 책임이다. "제사의 의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교성 20 : 46)

"성찬을 집행"하는 기회가 아론 신권에게 주어졌다. (교성 2 : 64) 아론 신권 소유자는 또한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살피며" "집회를 인도" 하여야 한다. (교성 20 : 53-54, 56) "모든… 제사와 교사와 집사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성임되나니"(교성 20 : 60)

이 반차를 좇은 자들은 교회의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그들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 한다. (교성 20 : 47)

아론은 그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권의 첫 우두머리되는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히 5 : 4)어 이 하나님의 권세의 직분에 오르게 되었다. 주께서 예비적 복음으로서 처음으로 육체적인 일에 관한 계명을 주셨을 때 낮은 율법을 집행하기 위한 신권의 권능도 주셨다. (히 7 : 12 ; 영감역, 출 34 : 1—2) 이 낮은 신권 곧 소신권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부여되었다. (출 28, 29, 30장, 레 1 : 11, 3 : 2, 13 : 2, 민 18장)

후에 아론 신권은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에게 부여되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는 아론 신권과 레위 신권은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교성 107 : 1, 6, 10)

고대의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여러 가지 의식을 집행하였으며, 그러한 집행 의식에 대하여 율법서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여러 의무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히 9 : 10)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그것들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엡 2 : 15)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의식을 집행하는 목적은 방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었다.

신권에 관련된 것은 모두 인간의 주의를 하나님에게로 집중시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따르게 하려고 고안된 것이다.

주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권세와 권능 곧 신권을 사용하신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중대한 목적을 밝히셨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 : 39) 그러므로 신권의 목적은 인간에게 주는 궁극적인 혜택인 구원의 하나님의 사업을 가져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고, 훌륭한 사람은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권은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고결하게 만든다. 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교성 84 : 19) 결국,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교성 84 : 35)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제사장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되어 있다. ✻

젊은이의 용기

웨인 비 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젊은이는 내가 여러 해 전에 기억했던 그 소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18세의 명랑한 청소년으로서 빠르고 강인한 다리로 농구장을 종횡무진하던 인디언 소년이었던 그를 나는 기억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날의 일이었고 지금은 휠체어에 몸을 담고 있는 그이다. 지금 그가 보여 주고 있는 검은 두 눈과 멋진 미소는 그의 젊은이다운 용기에 경이를 표하게 해준다.

내가 돈을 처음 만났던 때는 2년 전이었다. 그때 나는 그가 개종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홀어머니는 멀리 외따로 떨어진 나바호 인디언 보호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며 그는 인디언 학생 배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의 학업 성적은 우수했고, 피아노 솜씨도 훌륭했으며,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으로 놀리는 그림 솜씨 역시 훌륭했고, 자신의 기타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그의 음성은 밝고 부드러웠다. 돈의 성품은 온화했고, 그의 표준은 높았으며, 간증도 강하였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고, 졸업 후에는 잠시 인디언 보호 지역으로 돌아가 그의 민족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양부모님께 돌아와서 선교사의 부름을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인생이란 아주 세밀하게 짜놓은 계획을 변경시키는 방법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도 충격적인 일이 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짐작하지는 못하였을 것이었다. 뼈아픈 사건으로 그의 보호 지역에서의 즐거움이 끊어졌고 그의 선교 사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그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소형 트럭 뒤에 타고 달리다가 돈은 사고로 단단한 포장된 길로 떨어져 거친 길 위로 질질 끌려갔던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기억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고,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에 있었으며 온몸에 통증이 있었다.

그의 등의 심한 통증으로 그는 긴 밤을 지새워야 했고, 다음날 돈은 팔, 손,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목 아래로 온 몸이 마비된 것이었다!

응급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치료받은 등의 통증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아무리 사지를 움직여 보려 하였으나 소용 없었고 아픔은 여전하였다.

의사들은 상태가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거의 갖지 못하였다. 낙담의 눈물을 삼키면서 병상에 무기력하게 누워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잠든 밤마다 돈은 자기 옆에 무력하게 놓여 있는 손을 움직여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였다. 그는 기도하고 시도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꾸만 되뇌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아침 햇빛이 창문 가리개를 통하여 부드럽게 들어오면 긴밤 동안 애쓰다 피곤하여져 잠이 들곤 하였다.

끝없이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던 어느 날 밤 그의 손가락 하나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이나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돈의 가슴은 희열에 벅차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죽이고 그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그날 밤 돈은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의 지친 영은 벅찬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는 그의 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가졌다.

매일 밤, 많은 노력과 인내로 서서히 손과 팔이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돈의 담당 의사는 돈에게 그의 젊은 인생에서 변경할 수 없는 사실로서 자신의 마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 달갑지 않은 일을 미루고 있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사는 그 말을 돈에게 해주었다. 이 선량한 의사는 자기의 감정을 감추기 위하여 병실을 떠나려고 몸을 돌렸다. 방을 나가려다가 의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는 돈을 돌아다 보았다. 바로 그 순간 돈은 그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침대 난간을 잡고는 몸을 좀더 편한 자세로 끌어당겼다. 깜짝 놀란 의사는 자신을 수습할 수조차 없었다. "다시 해봐. 돈! 다시 해봐!" 의사는 흥분된 어조로 소리쳤다. 곧 병실은 갑작스런 소란의 원인을 알려고 달려온 간호원과 의사들로 꽉 찼다.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돈은 그의 팔과 손에 점차로 힘이 다시 생기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으나 아직도 꼼짝을 못하는 다리를 내려다 보면서 눈물을 참아야 했다.

이러한 시련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그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망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병실을 함께 쓰고 있는 환자에게 몰몬경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몰몬경도 주었다. 호피 인디언 소년인 찰즈는 곧 책에 끌려 밤에도 몰몬경을 계속 읽었다. 그는 먹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아까와 하면서 사흘 낮 이틀 밤 동안 책을 다 읽어 버렸다. 마침내 몰몬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돈의 옆으로 걸어와서는 이렇게 물었다. "돈, 이 책 어디에서 구했니? 우리 부족의 전설에서 나는 우리가 성스러운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 그런데 우리 전설 중에서 많은 것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 어디에서 이 책을 구했니?"

돈은 이 친구에게 복음의 회복과 몰몬경 백성의 후손이며 성약을 맺은 민족인 레이맨인으로서 자기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하여 기쁘게 간증을 말해 주었다.

찰즈는 이 새로운 메시지를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려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곧 퇴원하게 되었다. 돈은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자활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신체 마비 병동에 있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었다. 모든 사람이 낙담하고 좌절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낙담의 상태에 있는 돈이 어떻게 그토록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왜 매일 즐겁게 웃고 있읍니까?" 돈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미소는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고 내 웃음은 슬픔을 가셔 주니까요."

용감한 결단력으로 돈은 지금 그가 받고 있는 특별 치료의 혜택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지쳐서 체육실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아 돈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곤했다. 그의 용감한 노력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겸손한 간구때문에 마침내 그는 평행봉을 혼자서 걸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영적인 위로는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환자들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가 교회에 간 것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의 조롱에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새로운 집의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서 그는 기쁘게 그의 선교 사업을 행하기 시작했다.

다음날부터 그는 손수 휠체어를 밀면서 각 방에 들어가 그를 맞아들이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농담

으로 "예언자"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그 별명을 감사히 받아들였다. 저녁 때면 자주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은 오락 시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환자들은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였다. 환자들은 미소를 보내며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나 돈에게는 모든 것이 즐거울 수는 없었다. 그는 집과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웠다. 그의 훌륭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절름거리는 다리를 내려다 볼 때에는 그의 이상이 구름에 잠겼다. 훌륭한 교회 회원들은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함께 해주려 노력하였다. 돈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의 친절로 말미암아 제 얼굴에 미소가 있게 되었고 제 입에서 웃음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퇴원할 날이 가까와 오면서 그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맞아들일까에 대하여 걱정하게 되었다.

드디어 양부모가 오는 날은 다가 오고야 말았다. 돈으로서는 그의 머리속을 가득 메우고 있던 질문을 할 용기를 갖는 것이 큰 시련이었다. "제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양부모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물론이지, 돈. 네 침대도 마련해 놓았다." 그 친절한 대답은 그에게 벅차도록 고마운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기쁨과 사랑의 눈물이 서로 합쳐졌다.

돈이 떠나는 날밤 돈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의 많은 새로운 친구들이 그를 위하여 불러주는 노래 소리로 병원이 들먹거렸다.

이 젊은이의 용기와 기백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남아 있는 환자 두 명과 두 명의 간호원이 그가 준 영향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앞날을 내다보게 되었고, 모두 그가 떠난 것을 서운하게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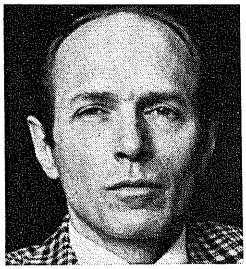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돈의 많은 친구들이 그를 맞아들였고 다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돈은 곧 말일성도 우체국 서점에서 직장을 얻어, 특별한 기계가 장치되어 있는 그의 자동차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자동차로 직장과 그가 등록한 메사 커뮤니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

내가 그를 방문하고 나오려 할 때 그는 나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 주었다. "이게 뭡니까?"라고 묻자 그는 "덴버에 있는 물리 치료 의사에게서 온 편지입니다."라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나는 편지를 펴서 읽었다. "사랑하는 돈에게"라고 편지는 시작되었다. "당신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어제는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받은 날이었으니까요."

나는 돈의 모범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의 미래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싶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눈물을 문질러 버리고 실망의 창문을 날려버리겠읍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

질의 응답



돈 노튼
브리감 영 대학교 영어학과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읍니까? 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때때로 나는 다만 "좋다"는 느낌만을 갖는 것인지 또는 진실로 의롭다는 느낌을 갖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읍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신에 대하여 발견하려 하는 청년들로부터 수없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니이 2 : 11) 우리의 할 일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변의 모임에서, 주일학교와 신권회 분반 모임에서, 신학 연구원 반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나는 학생들 스스로가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답해 줄 필요가 없이 그들 스스로가 대답합니다.

다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느끼게 되는 느낌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속이려 할 때 느끼는 느낌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느낌이 여러분의 경험에 해당됩니까?

다음 대답은 교회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라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영이 함께 할 때	영이 함께 하지 않을때
1. 즐겁고, 마음이 고요하고 맑다.	1. 기분 나쁘고, 낙담되고 혼란과 좌절을 느낀다.
2. 관대해진다.	2.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상대방의 요구에 거절한다.
3.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못한다.	3. 쉽게 화를 낸다.
4. 여러분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게의하지 않는다.	4. 은밀하게 숨고 피하려 한다.
5.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한다.	5. 사람들 특히 가족을 피하고 가족과 교회 역원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6.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기뻐한다.	6.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다.
7.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기를 기뻐한다.	7. 교회 참석, 가정 복음 교육, 성찬 등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다른 교회 직책을 얻거나 아니면 전혀 안하기를 원한다.
8. 기도하고 싶어한다.	8. 기도하기 싫어한다.
9.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싶어한다.	9. 계명이 성가시고, 엄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조절할 줄 알게 된다. 과식하거나 잠을 너무	10. 감정이 격하여져 증오, 질서, 분노, 육욕, 굶

많이 자지 않는다. 무절제하게 육욕적인 쾌락에 탐닉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며, 무절제하게 감정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주림 그리고 기근을 느끼게 된다.
11. 구세주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잘 알고 싶어한다.	11. 구세주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구세주는 여러분의 생활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귀찮게 해주는 존재에 불과하게 여겨진다.
12. 자신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이 즐겁다.	12. 쉽게 낙담하고 인생이 진실로 가치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목록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분별력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읍니다. 모로나이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리라. 무엇이라도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사로 인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온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 악마는 이같이 행하여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모로 7 : 16-17)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느낀다고 해서 악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유혹은 정신과 영향력과의 투쟁입니다. 이 둘은 모두 실체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악마와 투쟁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악마의 권세에 말려 들었다는 의미거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악은 유혹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게 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유혹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자를 일부러 청하거나 그의 주위를 맴돌거나 한번쯤 그와 어울려 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미칠 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나 교회의 지도자와 상의하고 신권의 축복을 구하여 주님께 깨끗한 정신과 양심으로 간절히 간구하여야 합니다.

사탄은 거룩한 것과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사랑의 자리에 사탄은 인기, 육체적인 매혹, 또는 낭만적인 게임의 사교적인 쾌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느낌이 있을 때, 분별력 테스트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을 가족과 친지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참다운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있기를 즐거워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들도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다운 사랑이며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

가정 복음 교육을 시작했던 날

돈 비 센터

1966년에 교회에 입교한 이래로 계속해서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해 오면서 수개월 전에 나는 드디어 가정 복음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여러 동반자와 함께 나는 항상 담당 가정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그 밖에 중요한 개인적인 행사를 기념하였다. 매달 우리는 각 가정의 개인적인 특수한 필요 사항에 맞추어 영적인 메시지와 공과를 전달하였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를 갖고 교회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담당 가정을 방문할 때 나는 어떤 느낌을 가졌다. 우정의 태도와 정신은 여전하였다. 모든 것이 잘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무엇인가 바르지 못한 것 같았다. 나의 동반자와 가족은 완전하게 편안해 보였고, 나의 불안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불안한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확실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내가 가정 복음 교사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일까? 나는 두 장로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였고, 가정 복음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어야 한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담당 가족들이 우리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느낌, 문제, 소망 등을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상호간의 신뢰의 태도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각 사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쓸모있고 건설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여되었단 말인가?

그 목요일 밤 우리가 마지막 가족의 집 대문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 섰을 때, 그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쳤다. 나의 동반자는 늘 우리가 방문을 마치면서 묻는 말을 하였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읍니까?" 그러자 늘 대답하던 대답이 나왔다. "없읍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구세주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중언 부언하지 말지니"(니삼 13 : 7)

중언 부언! 우리가 하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동반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각 가족이 모두 특별한 필요 사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로버트슨 형제 부부는 교회에서 활동적인 젊은 부부이나 "우리 두 사람뿐이어서"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공과를 가르치고 격려해 주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바우어 자매는 열 한살 된 아들이 있는 미망인이다. 그녀에게도 확실히 도움이 필요했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돕 형제는 어떠한가? 그와 그의 비회원 아내에게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자 항상 쾌활하고 명랑하며 생을 즐기는 듯이 보이는 30대에 이혼한 셔 자매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았지 않은가?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동반자와 내가 헤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좀더 잘 해야 하겠고 가령 방문 교육을 좀더 잘 해야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두 주간에 동반자와 나는 여러 차례 만나서 담당 가족이 갖고 있을 만한 필요 사항을 토론해 보았다. 우리는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리라고 여겨지는 항목을 세밀하게 목록으로 작성해 보았다. 다음 방문을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로버트슨 형제 부부에게 우리는 "우리가 도울 일이 없겠읍니까?"라고 묻는 대신에 "다음 목요일에는 저의 집에 오셔서 함께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바우어 자매에게는 "아들 개리를 데리고 다음 토요일에 축구장에 가도 좋을까요?"라고 말했다. 돕 형제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장로 정원회의 샌더스 형제님이 연장 다루는 데 솜씨가 있읍니다. 거실에 있는 부러진 의자를 그 형제님께 고쳐 달라고 부탁해 볼까요?" 셔 자매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 아내가 이번 주일 상호부조회에 자매님과 함께 참석하고 싶다던데 같이 가시겠읍니까?"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질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믄요.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는 새로운 가정 복음

교육 방법으로서의 유출된 기본적인 원리를 몇 가지 깨닫게 되었다. 담당 가족들의 특수한 필요 사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발견하게 된 원리이다.

1. 통찰력을 갖고 살펴야 한다. 담당받은 가정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직장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가? 집 수리, 집안 청소, 십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 등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들의 물질적 및 신체적인 필요 사항이 충족되고 있는가? 사소한 점을 묵과해 버리면 안된다. 노인, 십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그 밖의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내는 것이다. 가정에 긴장감이 있는가? 지나친 관용이나 지나친 형벌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이 서로의 흉금을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가정에서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신뢰와 확신과 이해가 있는가? 가족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영적으로 고조되고 충만되어 있는가? 그들의 필요 사항을 잘 파악해야 한다.

2. 예민하여야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부탁하기를 꺼려하고 때로는 거절한다. 기교있게 행하여야 한다! 도움을 제공하되 강제로 주지도 않는다. 도움을 줄 때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무슨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느낌을 갖게 하지 말고 우정을 갖고 행할 때 성공하게 된다. 접근 방법에서 예민하여야 한다.

3. 상상력을 발휘한다. 담당 가족 각자의 중요한 행사 날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날에 카드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어떨까? 또는 집에서 만든 것으로써 사랑을 담아 포장한 선물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 담당 가정을 모두 친목 소풍이나 파티에 초대한다. 그들의 필요 사항을 창의력을 살려 충족시켜 준다.

4. 구체적이어야 한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형제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읍니까?" 등의 질문을 삼가고, "아드님을 토요일 3시에 초등협회 모임에 데려다 줄까요?" 또는 "가정의 밤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필름을 보여 드릴까요?" 등의 질문을 사용한다. 사람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더 잘 대답한다.

이러한 원리는 가정 복음 교사 유의 사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이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나가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영적인 발전이라는 결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최근에 가졌던 성찬식이 끝난 후, 로버트슨 형제 부부가 나에게 와서 그들이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을 가지면서부터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진실된 간증을 말하였다. 이러한 보상은 의로운 길을 추구하고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해주고 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올바르게 수행할 때 교사와 가족 모두에게 큰 축복을 주게 된다. *

돈 비 센터 형제는 현재 주일학교 교사이며 신학 연구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

가정의 재정 관리

올슨 스콧 카드

대부분의 부부들은 금전 관리상에 문제가 없지만 재정상의 마찰이 극심한 부부들도 간혹 있다.

수십쌍의 말일성도 부부를 대상으로 접견을 해 본 결과 나는 간단한 한 가지 결론에 달하게 되었다. 금전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내가 조사한 대상 부부는 미국인 부부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이 결론은 세계 각 처에 있는 말일성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돈을 아주 적게 갖고 있는 부부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부 사이에는 그다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같지 않다.

돈이 없는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서도 재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재정을 쉽게 운영할 줄 아는 부부와 그렇지 못하는 부부의 차이는 무엇일

까? 재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즉 부부간의 대화, 실질적인 기대, 예산을 적절히 세우고 따르려는 노력 그리고 부채를 지지 않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부부간의 대화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남편 또는 아내 어느 한편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합니다. 물론 구입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의논할 경우도 있읍니다. 피아노를 구입하려 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피아노의 가격을 알아보았지요. 우리는 함께 의논한 후에 그것을 사도록 결정하였읍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결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물품 구입을 절감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지요."라고 얼 로쉐 형제 부부는 말하였다.

그것이 중요한 점이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느끼는 점이 중요하였다. "부부 사이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때 문제는 시작되는 것이다.

"저는 한번도 재정적인 면에 관계를 해 본 적이 없었어요."라고 어느 자매는 말하였다. "모든 금전상의 결정은 남편의 손에 달려 있지요. 그러니 우리가 거의 파산 지경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이 경우에, 남편은 단지 남자가 금전을 운영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긴 처사였다. 그러나 남편은 금전 관리에 능숙하지 못했고 오히려 아내가 그 방면에서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내가 가계부를 기록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지불할 때마다 토론하고 결정하였으며, 그들의 지혜와 상호 자제로써 파산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전혀 유익하지 않은 태도는 '이것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사고 방식입니다"라고 케이 크리스턴슨 가족은 말하고 있다. "남편이 벌어 들인 돈이건 아내가 벌어 들인 돈이건 그 돈은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소유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전 토론을 하고 계획하는 것은 "충동적인 물품 구입"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의한다고 해서 재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전혀 생길 수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다만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충격을 받거나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있다.

실질적인 기대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금전의 가치를 진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 초기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남편이 학업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몇해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한 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십일조를 바칠 돈이 없는 가족에게 나는 필요한 식품만을 사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입 이상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들은 부유한 이웃이 살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돈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부유한 이웃의 생활 방법을 모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예산을 세워 따르려는 태도

많은 가정의 재정적인 성공의 열쇠는 가장 필요한 필수품부터 우선 예산에 넣고 남은 돈이 있으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대부분의 금전 관리를 잘 하는 부부는 미리 연간 예산을 세워, 그 물품의 많은 비용이 나머지 재정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다.

예산 편성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식비나 주거비 등과 같은 크게 지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사항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재정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의료비, 예기치 않았던 재산비, 물가고, 갑작스런 사고 등은 그들의 예산을 붕괴하고 만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가족은 청구서의 대금조차 지불할 여유도 안생기게 되며,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위급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된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따를 때 가족은 적어도 그들의 가정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부채를 지지 않는다

로버트 레이어드 감독은 젊은 부부들에게 십일조를 바칠 것을 권고할 뿐 아니라 저축을 하라고 권고한다. "매달 적은 액수라도 저축을 하면 그 저축은 늘게 마련입니다. 저축을 하면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읍니다. 은행에 돈이 예치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은 남에게 돈을 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축을 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는? "위급한 경우를 위하여 예금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일 다음으로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저축합니다."

빚을 지고 싶은 유혹은 부부가 처음으로 좋은 직장을 얻었거나 봉급이 인상되었을 경우이다. 해결책은? 은행에 돈이 예치되기 전까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빚을 지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캐롤라인 그린은 피아노를 갖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살 여유가 없었다. 그녀와 남편은 그녀가 3년 동안 학생들에게 피아노 교수를 한다면 피아노 대금을 3년 내에 지불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우리는 1년간의 불입금을 미리 저축하였지요. 그런 다음에 피아노를 사서 제가 피아노 레슨에서 나오는 돈으로 불입금을 치뤘읍니다. 지금은 저의 자녀들에게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의 피아노 레슨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피아노에 투자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채는 간혹 그것이 투자인 경우, 합법적인 재정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의

예에 나온 그린의 피아노와 같이, 구입할 물건 자체가 그 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돈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버는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도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하므로, 만약의 경우 다시 팔 때에 그 값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물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대지나 건물이나 사업체 등에 투자하기 위한 부채도 합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투기성일 경우에는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 있고, 교회 지도자의 권고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돈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 자녀를 기르면서 대학에 다니는 유타주 프로보의 한 젊은 부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으니 문제될 게 뭐가 있읍니까?"

그러나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 문제로 말다툼하지 말기로 했읍니다. 즐겁게 살기로 했어요. 비좁은 아파아트에 산다는 것이 왜 비참합니까?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는걸요!"

금전을 잘 운영하는 부부와 그렇지 못하는 부부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태도에 있다. 수입의 다소에 관계없이 재정면에서 조화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정말 물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물론 있으면 좋지요—그러나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극복될 수 없는 장애는 거의 없다. 재정적인 문제가 닥쳐도 그러한 부부는 융화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내가 접견한 말일성도 가족의 경험은 금전 관리상에서의 몇 가지 원리를 지적하고 있다.

1. 대화하라! 부부는 모두—다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사소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함께 상의하여 남편과 아내의 지혜를 모아 결정되어야 한다.

2. 실질적인 것을 기대한다. 특히 결혼 초에는 돈을 쉽게 벌지 못한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모두 독신이었을 때처럼 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서는 안된다.

3. 예산을 세운다! 미리 계획을 세운 후, 가급적이면 그 계획을 따른다. 가계부를 정리한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예산을 수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물품 구입을 위하여 부채를 지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다면 월부로 물건을 사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투기의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이 당면하게 될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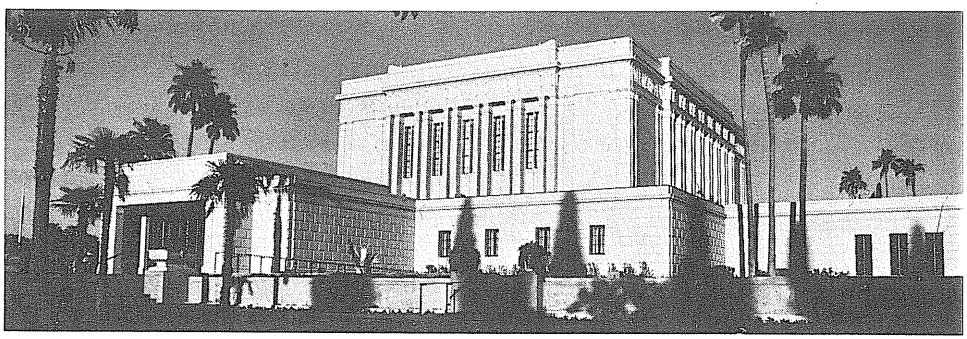
넉넉하다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이다. 가정의 수입에 맞게 생활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가족은 항상 넉넉할 것이다. 적어도 행복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 ✻

올슨 스콧 카드, 자유 기고가, 솔트레이크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크, 제21와드 복음 교리반 교사.

해의 왕국의 결혼

제 2 부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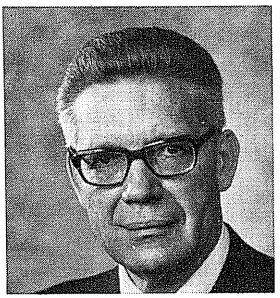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결혼과 연관되어 있읍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른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경험, 모든 권고와 지시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혼 생활에 임하도록 준비시켜 주기 위한 것이며, 이 결혼은 우리가 결혼 의식을 통하여 맺은 성약을 준수하여 지킬 때 사실상 영원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는 영원한 결혼의 반차에 연결됩니다. 그것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결혼과 여러 가지에 대한 일반적 결혼 개념에 대한 계시를 읽어 봅시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는 나의 축복을 받을 자는 그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정하여진 율법과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그대로 반드시 지켜야만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32 : 5)

이것은 모든 시대에 인간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기본되는 원리입니다.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활의 은사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그것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은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에서 칭찬받을 만하고 의롭게 생활하여 이 현세의 시험을 받고 현세가 지난 후에 부활할 특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와 영원한 견지에서 볼 때 아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떤 것을 얻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이란 충만한 복음이며, 복음은 주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에 관한 성약입니다."

법을 지키며 생활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읍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에 대하여 이르노라. 이는 나의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완전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32 : 6)

"새롭고도 영원한 서약"이란 충만한 복음이며, 복음은 주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에 관한 성약입니다. 이 성약은 우리 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약이며, 이 지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약입니다. 다음 절인 7절의 말씀은 모든 복음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해당되는 용어와 조건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률 용어로 기록되었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곧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이니,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맺어 주는 능력을 이 땅에서 지니도록 내가 성임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보를 통하여 계시와 계명으로써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서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맺어지고 계약되고 결봉되지 아니하거나 가장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후에 아무런 효험이나 효력이나 능력이 없으리라. 나는 말일에 나의 종 요셉을 임명하여 이 권능을 지니도록 하였나니, 이 신권의 이 권능과 열쇠를 부여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일대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 이상의 목적으로 맺어지지 아니한 일체의 계약은 사람의 죽음으로서 끝을 맺느니라."(교리와 성약 132 : 7)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읍니까? 우리는 필멸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에 합법적인 한계를 맺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며,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한 죽음이 그들을 가를 때까지 지속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까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능은 인간에게는 없읍니다. 아무도 다음 세상에서 행사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그것은 현세에 관계되는 것입니

"이 성약은 우리 시대에 새롭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약이며, 이 지상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성약입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 현세에 살고 있는 필멸의 인간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게 해주고, 영의 세계에서 지속될 수 있으며, 부활에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며, 그의 행위는 필멸성에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그의 행위는 끝이 없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부여하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영원토록 인봉되는 권능을 갖게 하셨으며, 다음에 그는 그 권능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초대 교회의 열두 사도에게 주어서 그들도 역시 같은 권능을 갖게 하셨으며, 우리 시대에 그는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읍니다. 그는 사도와 예언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주셨으며, 그들은 또다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영원히 인봉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었읍니다. 그는 엘리야를 보내어 인봉의 권능을 회복시키셨읍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음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축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일라이어스를 보내셨읍니다.

엘리야가 왔고 일라이어스가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행사하면서 또 다시 그들의 열쇠와 권세와 권능과 권리를 지상의 인간에게 부여하였으니,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합니다. 또다시 이 지상에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영원히 매어지는 권능을 가진 자가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에게는 결혼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결혼을 집행할 수도 있읍니다. 그들은 결혼 의식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면 영의 세계에서도 남편과 아내로서 살게 되고, 영생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로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승영에 이를 수 있읍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이 인봉의 권세를 이 교회에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같은 결혼 의식은 이 교회에서만 집행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모든 율법을 요약한 이 성구에는 세 가지의 필수 요건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영원히 지속되는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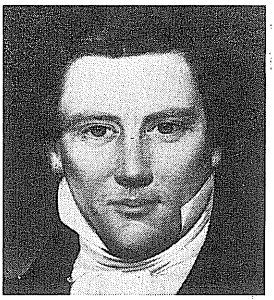
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첫째, 올바른 침례를 알고, 둘째, 이 의식을 행하는 합당한 집행자를 찾으며, 셋째, 이 의식이 성신의 권세로써 인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침례 의식만이 회계하는 자를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인용되는 이같은 일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식과 성약과 모든 일에 있어서 적용됩니다. 결혼과 약속의 성령에 대하여서는 그것의 개념과 원리와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 중 하나는 "아버지께서 의롭고 참된 모든 자에게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신"(교성 76 : 53)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바르게 생활하고, 최선을 다하며, 세상을 이기고, 육욕을 극복하며 의의 길을 가는 자의 행동과 행위는 성신의 인정과 인봉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가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전 6 : 11)고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여, 한 주일, 혹은 삼 주일 혹은 석 달 혹은 "죽음이 우리를 가를 때까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제한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집행으로 결혼할 수 있읍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의지로써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아내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인봉하는 권능을 지닌 자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결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첫째, 해의 왕국의 결혼을 구하고 올바른 의식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인봉의 권세를 소유한 합당한 집행자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로, 의롭고, 바르고 고결하고 덕스럽고 도덕을 갖춘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인정하고 인봉하고 의롭다 하며 승인하는 결혼이 되어야 하며, 이같이 될 때에 그 결혼 생활은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인봉되고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일성도는 신전에 갈 수 있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화시키고 교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 처할 때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우리에게 신전 추천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전에서 엄숙하고 거룩한 성약을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로 계속 생활하도록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맺은 성약이 깨뜨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같이 할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쓸 때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앞서 언급된 대로 영생의 길을 따르려고 진실로 노력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다음 세상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남편과 아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때에 남편과 아내로서 부활할 것입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부활하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소유하고 상속받을 수는 없읍니다. 죽은 후와 부활 후에도 발전하고 진보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어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계속하여 배우고 진보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신전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혼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현세에서의 가족은 준비 단계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결혼은 율법과 우리가 맺은 성약을 잘 따르느냐 하는 조건에 기초를 두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신전에서 결혼할 때, 나는 영원한 성약에 수반되는 충만한 영광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완전한 성품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자녀를 빛과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영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준비시켜야 할 위치에 놓여지며, 또한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같은 영원한 유대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또 그다음 세대로 영원히 이어지는데 필요한 일을 행하여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승영에 이른 자들의 큰 계보적인 유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는 이 혈통에 포함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탈락될 것입니다.

나는 율법에 합당하게 생활할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가진 자는 그렇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으나, 기회가 주어졌었더라면 율법에 순종하였을 사람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들의 소망과 의도에 따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재량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 승영과 구원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였읍니다. 고의로 구체적인 것을 피하였읍니다. 나는 예언자의 말씀과 같이 참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읍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합니다." 내가 일반적인 개념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미 지적된 보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추구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내재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생각은 가족 단위의 영원성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영원한 가족 단위보다 더 영광스러운 개념을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을 쌓는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나면 주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 25 : 21)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회복된 이 종교와 관계된 모든 영광스럽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것은 진실합니다. 우리가 지닌 이 종교에 대하여 이것이 참되다는 단순한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실은 없읍니다. 이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는 진실하며, 이 교리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 교리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과 비천함을 버리게 해주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순수한 종교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고 새로운 성신의 피눈물이 되도록 능력을 더해 줍니다. 참된 교회, 영원한 진리의 굳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실되고 하나님의 사업임을 간증드릴 때, 나의 이 간증이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는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고 주님은 인간에게 말일에 그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현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자요 계시자요 대변자이시고, 현재는 약하고 시련을 겪으며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 교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땅을 덮게 될 때까지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을 아무 의심없이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
(마 25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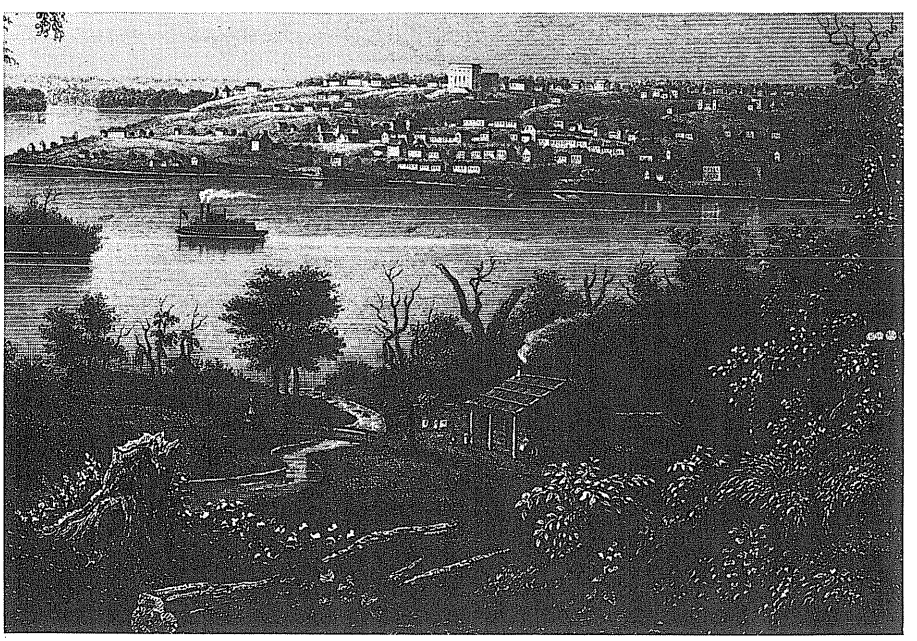
나부로의 집합

교회사 시리즈, 제 4 부
1839~45

글렌 엠 레오날드

폭도들에 의하여 북부 미주우리주로부터 추방된 말일성도에게 1839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되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미주우리주 헌스밀의 대학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이 당한 가혹한 일들과 주지사의 추방 명령에 따라 잃게 된 재산과 가옥들도 잊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해 겨울 미주우리 강을 횡단하여 일리노이로 가는 행로는 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공적인 업적에 있어서 정점에 달할 수 있었으나, 나부에서의 세월은 비극의 절정이었다.

1월에 임명된 일곱 명의 재배치 위원회는 파웨스트에서 오는 이주민단을 관리하였다. 약간의 망명단은 배를 타고 미주우리 강을 따라 센트 루이스로 갔으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포장 마차, 손수레로, 또는 걸어서 동부의 주 경계선을 따라 600리를 여행하였다. 아마리바이 행콕 가족이 그 전형적인 가족



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이 끄는 수레를 만들어 옥수수를 가득 실었다. 그들은 옷이나 담요도 거의 없었고 가재 도구도 없었으며 구운 옥수수, 느티나무 껍질 그리고 약초를 먹고, 밤에는 하늘을 천장으로 삼아 잤으며, 1월 어느날 아침에 얼음이 녹기 전에 그들은 강을 건넜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행콕 가족도 퀸시 마을에서 피난처를 정하였다. 이곳에서 동정심이 많은 주민들은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퀸시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브리감 영은 이주민이 모두 정착할 것을 제안하였고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성도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리하여 재배치 지역을 택하기 위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미주우리 강변에 커머스라고 불리우는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그해 봄에 예언자는 성도들과 연합하게 되었을 때 그곳을 나부라 부르게 되었다. 아이오와주 리 카운티 강 건너에 있는 땅도 이미 성도들이 구입하여 제이라헤믈라라는 이름으로 정착지의 기반을 다졌다.

나부는 늪 지대로 건강에 좋지 못한 곳이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자마자 곧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었다. "참으로 전염병이 많이 유행하는 때였읍니다."라고 윌포드 우드럽은 말하였다. "요셉은 그의 집을 병자들에게 내어주고는 그는 앞마당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기거하셨읍니다." 이 고통의 기간동안 예언자는 신권의 권능으로 강양편을 따라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다음 여름에는 전염병이 크게 번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1841년에 시드니 리그돈은 죽은 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무서운 질병을 없애기 위하여 열심히 늪의 물을 퍼냈다.

1840년에 첫번째 새로운 무리의 말일성도 이주민이 나부에 도착했다. 6월 6일에 40명의 영국 성도들은 리버풀을 떠났다. 그들은 유럽 출신의 최초의 말일성도였으며, 약 5,000명의 영국 몰몬 중에서 나부 시절에 최초로 미국으로 항해한 유럽 성도들이었다.

영국으로부터 새로운 회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1838년 7월에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시에 의하여 부름받은 십이사도 평의회의 특별한 선교 사업의 결과였다. 8명의 사도 곧 브리감 영, 히버 시 킴볼, 팔리 피 프랫, 올슨 프랫, 존 이 페이지,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들은 다음 여름에 선교 사업을 떠났다. 그 중에는 매우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나, 모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을 두고 주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

최초로 영국에 도착한 사람은 존 테일러 장로와 윌포드 우드럽 장로였다. 그들은 1840년 1월 11에 리버풀에 도착하였다. 곧 그들은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우드럽 장로는 교회 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선교사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처음에 포테리스•스태포드셔에서 회원과 함께 그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우드럽 장로에게 특별히 도움을 준 친구는 윌리엄 벤보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히어포드셔에서 큰 농장을 갖

고 있는 형 존 벤보우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고대의 복음을 갖기 위하여 모라비아교에 가입하고 있었다. 3월 초에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그의 일기에 "주님이 나에게 남부로 가라고 경고하셨다."라고 기록하였다. 곧 그와 그의 주인은 존 벤보우의 집으로 여행하여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다음에는 수백 명의 청중에게 가르쳤다. 그 지역에서만 우드럽 장로는 한 달 동안에 158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다른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다. 1840년 1월에 1,500명이었던 영국의 회원수는 사도들이 15개월 후에 미국으로 귀국할 때 5,814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의 선교 사업에 덧붙여서 십이사도는 몰몬경과 찬송가를 출판하였고 월간 잡지인 밀레니얼 스타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잡지는 130년 동안 영국 성도들에게 읽혀졌다.

영국에서의 사도들의 중요한 활동은 이주민단을 장려하기로 결정한 일이었다. 그들은 조직적인 체계를 세워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빈곤한 자들을 돕도록 격려하였다. 1840년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는 각자의 고국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라는 권고가 새로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까지 38,000의 영국 성도를 포함하여 51,000명의 유럽 성도들이 대서양을 건너 교회 본부로 이주하였다.

나부 시절에서의 선교 사업은 영국, 캐나다 남부 그리고 미국이 중심지였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곳으로 선교 사업의 첫발을 디딘 것이 이 시기로 이 때에 호주, 인도, 자마이카, 남미 그리고 독일에까지 방문하였다. 이곳에서의 사업은 제한된 것이어서 약간의 개종자를 낼 수 있었을 뿐이었다. 활발한 선교 사업은 다음 세대를 기다려야 했다.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선교 사업의 하나는 1840년 4월 대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의 집합지로 헌납하도록 올슨 하이드에게 주어진 부름이었다. 1841년 10월 24일, 일요일 아침에 하이드 장로는 예루살렘에서 그 땅을 유대인의 집합지로 헌납하는 기도를 드렸다. 또한 그는 이곳에서 예루살렘 재건, 유대인 국가의 재건, 신전 건립 등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일리노이주의 저개발 농촌 지역에 도착한 영국 성도들은 경제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땅을 발견하였다. 이 잠재된 부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으며, 빈곤과 질병과 싸워야 했다. 다른 말일성도 지역 사회가 행콕군과 일리노이주의 인근 지역과 강 건너 아이오와에서도 생겼으나 나부가 중심되는 집합지였다.

요셉 스미스는 나부에 공식적인 시를 건설하고, 대학을 세우며, 셋째로 시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합법적인 승인을 일리노이주 당국으로부터 얻었다. 1841년 2월에 전 일리노이주 군 지휘자였으며 그후 교회에 개종한 존 시 베넷이 최초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베넷의 도움으로 성도들은 승인서를 얻었으며, 그의 법조로 나부 군대는 약 3천 명 가량의 활기에 찬 군대가 되었다. 이 군대는 자기 방어와 주와 국가에 대한 몰몬의 애국심과 충성심의 상징으로 존속하였다. 베넷을 학장으로 하는 나부 시립 대학은 캠퍼스를 가져 보지 못했으나, 학급이 있어서 올슨 프랫, 올슨 스펜서, 시드니 리그돈이 강의를 맡았다. 그 대학은 공립 국민학교를 관리하기도 하였다.

나부는 그 크기에 있어서 시카고와 겨루는 인구 일만 명의 번성하는 도시였다. 나부에서의 많은 경제적인 성장은 무역과 농업의 결과였다. 주민들은 가내 공업과 상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 당시의 나부시 주민의 주된 생계 수단은 토지 매매와 가옥과 소규모 상점의 건축이었다. 시는 자체 제제소, 벽돌 공장, 목공소, 가구공장, 그 밖에 기능공을 소유하고 있었다. 1842년 이후에는 많은 통나무집이 벽돌집으로 바뀌었으며, 그 집들은 아직도 존속되고 있으며 말일성도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된다.

교회 면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나부에서의 교회 조직과 교회의 성장이다. 나부를 중심으로 부근지역으로 정착지가 늘어나게 되자 회원들의 세상적 및 영적인 필요 사항을 돌아보기 위하여 스테이크가 세워졌다. 스테이크의 분신인 와드가 최초로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감독으로 하여금 재정 및 복지 문제를 집행하게 해주는 편리한 규모였다. 그러나 와드는 1840년대 후반, 유타주로 이주해 온 이후까지는 완전한 조직력을 갖춘 교회 행정 단위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교회 정책에서 중요했던 것은 1841년 8월 16일에 스테이크 내의 교회의 사업에 관한 행정상의 책임을 십이사도에게 부여한다는 요셉 스미스의 발표였다. 그때까지 십이사도는 다만 선교부만을 관할하였으나, "십이사도가 대관장단 바로 다음자리에 서도록 부름을 받아야 할 때가 왔읍니다."라고 예언자는 말하였다. (교회 정사 4 : 403) 십이사도의 역할은 확대되어, 나부에 온 새로운 이주민들의 정책을 돕던 십이사도는 교회와 민간 사회 활동에 대한 고문 역할을 담당했다. 선교사의 부름을 도왔으며, 타임즈 앤드 시즌스(1839년에 나부에서 창간됨)를 출판하였으며 종교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부에서의 종교 생활은 대부분 일요일 아침 예배 의식이 중심이 되었다. 날씨가 좋으면, 성도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신전 부지 아래 언덕 등성에 모여 야외 설교 모임에 참석한다. 대부분 요셉 스미스가 주요 연사였다. 이러한 모임과 또 다른 모임에서 예언자는 많은 중요한 종교적인 교리를 설명하고 성구를 설명하였다. 그는 신비의 속성, 인간의 영원성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 이 모든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의 일부로서 예언자가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1840년 9월부터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이 미주우리 강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여 일년 동안 계속되다가 1841년 11월에 나부 신전 지하실의 침례반이 완성되어 헌납되면서부터 그곳에서 집행되었다. 그 밖의 신전 의식, 엔다우먼트, 그리고 영원한 결혼 의식은 붉은색 벽돌 이층집의 정해진 방에서 집행되었다. 엔다우먼트는 예언자가 순교당하기 전, 1842년 5월에 소수 그룹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성도들은 합당한 모든 사람들이 신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신전 완공을 위하여 돈과 시간을 바쳤다. 신전 엔다우먼트는 1845년 12월 11일에 거의 완공된 나부 신전에서 시작되었다. 이 성스러운 사업은 1846년 초 그곳을 쫓겨 날 때까지 계속되어 약 5천

여 명이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혼에 관한 계시는 이미 받았으나 요셉 스미스가 처음으로 기록한 때는 1843년 7월 12일이었다. 이 계시는 신권 권능에 의해 인봉의 원리가 집행되어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이 계시에서 복혼이 신권의 지시 하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이 원리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는 우선 이 원리를 그의 가장 절친한 친지 몇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었다. 역사적인 증거에 따르면 그는 커틀랜드에서 성경 영감역을 착수하고 있는 1831년에 이미 이 원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십이사도가 영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 교리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이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은 나부에서 여러 명의 아내와 인봉을 하였다. 이 행위는 1852년, 올슨 프랫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공연히 발표하고 영원한 결혼의 거룩한 원리에 대하여 세상에 설명하였을 때까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 복혼 제도는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1890년 이 행위를 중단한다는 선언서를 발표했을 때까지 교회에서 지속되었다. (성도의 벗, 1978년 12월호 참조)

특히 배도자들은 이 복수 결혼에 대하여 교회를 비방하려 하며, 이 행위에 대한 소문이 나부에 돌았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간음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요셉 스미스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사실상 교회는 당시 19세기 사회에서 여성들이 지녔던 일반적인 지위보다 훨씬 높은 지위로 올려 주었다. 사람들은 이 원리가 하늘로부터 인정된 종교적인 원리로서 모든 회원의 높은 도덕적인 생활을 강화시키는 말일 성도의 원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교회의 여성들은 사회의 악덕을 시정하고 덕을 높이도록 격려 받았다. 사실 이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목표의 하나였으며, 이로써 그는 1842년 3월 17일에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또한 자매들에게 "형제들을 격려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을 찾아 어려움을 돕는 데 열심히 일하게 하십시오" (모임 기록, 1842년 3월 17일, 밀레니얼 스타 역사과)라고 권고하였다. 엠마 스미스를 회장으로 한 상호부조회는 신전 건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셔츠를 만드는 일에 처음으로 관심을 돌렸다. 상호부조회에는 나부에서만 1,300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하여 이 봉사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 조직은 1844년까지 계속적으로 정규 모임을 가졌으며 또한 이 조직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으뜸이 되도록 돕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다시 소생되었다.

나부에서의 종교적 및 경제적인 성장이 성도들에게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때, 정치적인 사건들은 곧 서부 일리노이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변경시켰다. 요셉 스미스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은 활발히 지방 행정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말일 성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가능하면 미주리주에서와 같은 합법적인 대학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1842년경 나부의 몰몬 인구는 행콕군을 압도

하고 말일성도의 근처 아담즈군에서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같은 정치적인 힘은 그 지역의 원래의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 침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주었다. 성도들의 투표에 따라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승패가 결정될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영향력을 제지시키기 위하여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비몰몬은 반몰몬 단체를 결성하여 몰몬 지지 후보자들을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토마드 샤프의 일간지 와르샤와 시그날은 반몰몬 단체의 원성을 게재했다. 민주당이 몰몬의 지지를 입어 일리노이주 의회를 석권하게 되자 공화당 지지 신문은 이를 비난하였다. 1842년 선거에서 예언자의 형 윌리엄 스미스가 샤프를 물리치고 일리노이 의회의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샤프의 사설은 일리노이로부터 몰몬을 추방하든지 또는 근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이러는 동안에 미주우리주 관리들은 요셉 스미스 외 다섯 명을 법정으로부터 도망한 자라고 송환하여 예언자가 파웨스트에 살았던 때의 그에게 지워졌던 죄명을 다시 거론하였다. 그때 누군가가 1842년 5월에 미주우리 주지사인 릴번 더블류 보그스 주지사 암살을 시도하였을 때, 요셉 스미스는 공모자로 입건되었었다. 일리노이 신문은 예언자가 일년 전에 이미 암살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요셉 스미스는 그와 같은 죄에 책임을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예언자를 해치려는 모든 음모의 주모자는 나부의 초대 시장이며 대학 학장이고, 나부 군대 대장이었던 존 시 베넷이었다. 1842년 5월에 요셉 스미스는 베넷이 나부 군대 기동 연습 행진 중에 예언자를 암살하려고 음모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경호원들의 이 음모를 사전에 알고 좌절시켰으며, 열흘 후에 베넷은 시장직을 사임하였다. 다음 달에 베넷은 부도덕한 행위를 고백하였고 파문당하였다. 그는 나부를 떠나 비행을 들추어 내는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몰몬 지도자들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주민들을 속여 부동산을 사들였으며, 그들이 부도덕하고 정치적인 음모를 가졌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추문으로 말미암아 많은 좋지 못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명을 게재하고 잘못 보도된 사실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웃 정착지로 특별 사절을 파견하였다.

한 가지 위협이 가시면 또 다른 위협이 뒤따랐다. 예언자는 오로지 자신과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편만을 구할 뿐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요셉 스미스는 성도의 집합지를 확대시킬 것과 미국으로의 들어오는 이주민을 더 많이 받아 들일 것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1842년에 그는 록키 산맥을 성도들의 피난처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1847년에는 실제로 서부 아이오와 연방의 땅을 조사하도록 소규모의 탐색대를 보내었다. 다음해 2월에 그는 캘리포니아로 보낼 지원 탐사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남서부 택사스에 몰몬 정착지를 개척하는 안을 검토하였다.

택사스 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는 오십인 평의회라 하고 "왕국 자치부"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게서 많은 세상적인 임무를 덜어주고 국회와 함께 일하면서 몰몬의 권익을 지키고 적당한 정착지를 찾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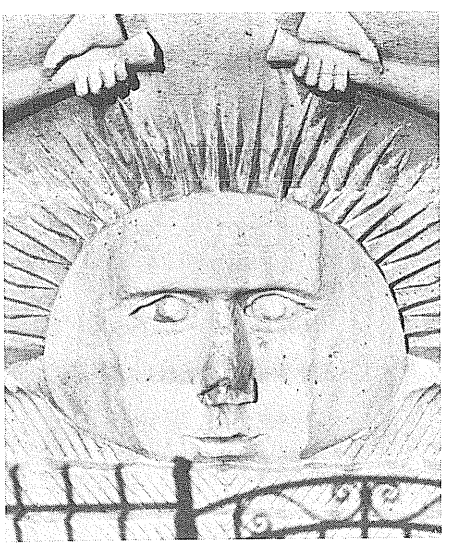
하여 조직된 50명의 평의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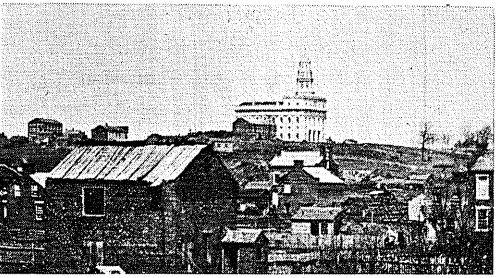
오십인 평의회는 1844년에 요셉 스미스를 미국 대통령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 그는 국가의 양대 정당으로부터 인기있는 공약을 합하여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예언자는 미국 선거권자들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정치보다 위에 올려 놓고자 하였으며, 그의 소견을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의 협조를 얻어 "미연방 정부의 권력과 정책에 대한 의견"이라는 소책자로 발행하였다.

요셉 스미스는 교회의 후원 없이 한 시민으로서 출마하였으나, 교회 당국은 그의 당선을 위하여 협조하였다. 4월 대회에서의 연사들은 그의 출마를 찬성하였고 300명의 자원자들이 그의 선거 운동을 돕겠다고 나섰다. 대관장단의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은 국민 개혁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통령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 국민 개혁당은 1844년 7월 중순경에 메릴랜드 발티모어에서 전당 대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전당 대회는 결코 갖지 못하였다. 존시 베넷과 예언자를 반대하는 그의 동료들이 결국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요셉 스미스의 욕망을 좌절시켰으며 결국 순교로써 그의 짧은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던 것이었다.

1844년 7월 7일, 배도한 교회의 몇몇 유명한 회원들을 포함하는 몰몬 반대자들은 나부 엑스포지터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이 신문에서 그들은 요셉 스미스를 거짓 예언자, 정치적인 선동자, 부도덕한 악당, 재정적인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신문은 몰몬 교리가 이 같은 비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이같은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 신문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시장인 요셉 스미스 뿐 아니라 나부 시 평의회의 여러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시 평의회는 장시간 토론한 후, 이 비방적인 신문이 공적 불법 방해법을 범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 신문이 반몰몬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신문을 중단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시 군정은 인쇄소를 파괴하고 활자를 던졌으며 종이를 불태웠다.

신문사 소유주는 시 평의회의 폭동을 조장시켰다는 죄로(신문사 파괴가 합법적으로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였다. 평의회 회원들은 체포되어 법정에 소환당하였으나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반몰몬 신문들은 요셉 스미스가 나부 군대를 일으켜 도시를 계엄령하에 두었다고 선동을 일으켰다. 일리노이 주지사, 토마스 포드 지사는 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





하러 나섰다. 그는 양쪽이 모두 법과 질서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약속받았다. 포드 지사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양편의 교섭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 일리노이주 카테지로 갔으며, 그곳에서 그는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결정하게 되었다.

폭동에 관련된 15명이 6월 25일 카테지에 출두하였고, 그곳에서 치안 판사는 그들을 석방하였다. 그날 저녁 늦게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는 나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죄목으로 영장을 받았다. 그들은 발언할 기회도 받지 못한 채 감옥에 수감되었다. 존 테일러, 윌라드 리차즈, 그 밖의 몇 명도 함께 투옥되었다.

6월 26일, 포드 지사는 감옥에 수감된 예언자를 방문하고는, 시 평의회의 조치와 군단의 동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취해졌음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포드 주지사는 반몰몬 카테지 그레이스(지역의 군단)에게 감옥을 지키게 하였다. 주지사는 그가 나부를 방문하면 수감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겠노라고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무시하고 6월 27일 아침에 성도들이 있는 도시로 떠났다.

카테지에서는 얼굴에 진흙과 탄약가루를 얼굴에 바른 일단의 무리가 감옥으로 쳐들어와 순식간에 간수들을 제압하였다. 폭도들은 네 명의 말일성도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층 감방 침실로 몰려들었다. 총알이 침실 문을 뚫었다. 하이람 스미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존 테일러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심한 상처를 입고는 그는 몸을 굴려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요셉 스미스는 창문으로 뛰어갔다. 그는 문에서 쏘는 총탄 두방과 창문을 통해 들어 온 한발의 총탄을 맞아 쓰러졌다. 폭도들은 예언자가 죽었음을 확인하고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문 뒤에 서있는 윌라드 리차즈를 남겨 두고 밖으로 나갔다. 누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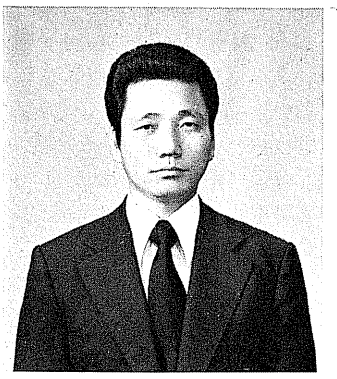
"신전 엔다우먼트는 1845년 12월 11일에 거의 완공된 나부 신전에서 시작되었다. 이 성스러운 사업은 1846년 초 그곳을 쫓겨 날 때까지 계속되어 약 5천여 명이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가 몰몬들이 온다고 외쳤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폭도들은 도망갔다.

그들은 예언자가 죽으면 몰몬 교회가 끝나게 될 것으로 믿고 예언자를 죽였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은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 스미스를 주님의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자로 여겼다. 충실한 회원들은 예언자를 통하여 회복된 말일의 사업이 결국에는 승리하였다는 굳은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요셉 스미스는 이름없는 사람으로부터 국가적으로 알려졌으며 성도들은 그의 이름이 "온 나라…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다"(요셉 스미스 2서 : 33)고 믿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할 일에 착수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

교회사와 세계사 연대표

교 회 사	세 계 사
1832 대관장단 조직	
1833 미주우리 잭슨군으로부터 추방	
1835 십이사도 평의회 및 칠십인 제일 정원회 조직	
1836 커틀랜드 신전 헌납(그리스도와 모세와 일라이어스와 엘리야의 방문)	
1837 영국에 최초의 선교사 파견	1837 미국의 경제 공황
1839 일리노이주 나부에 몰몬 정착	1839—1842 아편전쟁, 영국—중국
1841 올슨 하이드 장로가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의 집합지로 헌납함	
1842 상호부조회 조직	
1844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의 순교	1844 최초로 전신기 사용



예수님의 행적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제 2 보좌 남 영진

신약 성서 4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세에 계셨을 때부터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서 읽을 수 있읍니다.

이 복음서를 사건별로 구분하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263 가지가 넘습니다. 그 내용에는 병자를 고친 일 등의 기적, 전도, 제자를 부른 일, 예언, 비유로 가르친 일 등 여러 가지 교훈과 모범을 보여 주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내가 평소에 염두에 두었던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전세에 계셨고 세상을 그가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요한복음 1 : 1 ~ 19 참조)

둘째, 예수님은 어떤 유혹에도 들지 않으신 꿋꿋한 분이었읍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마태복음 4 : 1~11)

세째, 전도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자세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닥쳐도 전도에 투철한 자세로 임했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 : 14~15)

네째, 산상수훈에서 밝힌 진실되고 의로운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갖게 하는 교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5장~7장 참조)

다섯째, 온유함과 겸손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태복음 18 : 1~5)

여섯째, 용서에 관한 훈계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마태복음 18 : 15~35 참조)

일곱째, 제자의 발을 씻기신 희생과 봉사에 대한 모범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요한복음 13 : 1~20)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지면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 드렸읍니다. 아멘 ✻

가정은 의로움, 선함, 친절함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으뜸되는 학교이며,
첫째가는 교회 입니다.
(오 레슬리 스토운 장로)